

| | | | |
|---|--|---|--|
|  인천광역시 | 보 도 자 료 | |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본입니다 |
| | 배포일자 | 2023년 3월 20일(월) 총 5매 | |
| 담당 부서 환경기후정책과 | 담당자 | • 환경산업교육팀장 김미영 ☎440-3536 • 담당자 허금정 ☎440-3537 | |
| 사진(이미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인천시, 올해 중소기업 녹색기술 사업화에 집중
- 생분해성 소재개발, 친환경 제품화 등 녹색기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
- 초기 창업기업들 위한 기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도 확대키로 -

인천시가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녹색기후산업을 지역 혁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탄소저감 관련 제품(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9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기업의 친환경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인증, 지적재산권 확보와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은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가 수행한다.

시는 올해도 녹색기술 친환경 제품의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생분해성 수지 복합소재 개발을 통한 폐자원 문제 대응, ▲공정개발을 통한 친환경 제품화, ▲신재생에너지 기술 인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험·평가 및 특허등록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기획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창업 초기 기업들의 기술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짐은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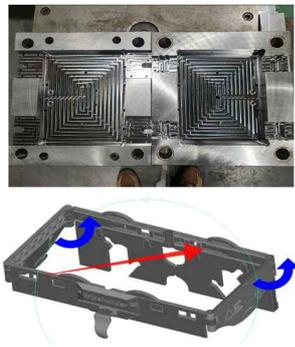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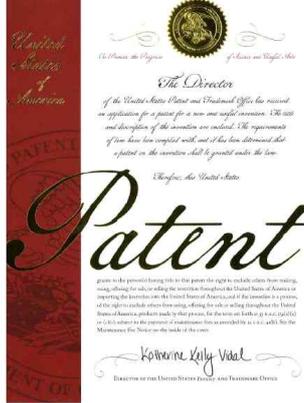
또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와 지역 녹색기후산업 기업의 해외 사업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2021년부터 개최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화 국제 컨퍼런스’를 올해도 개최해 글로벌 기후중심도시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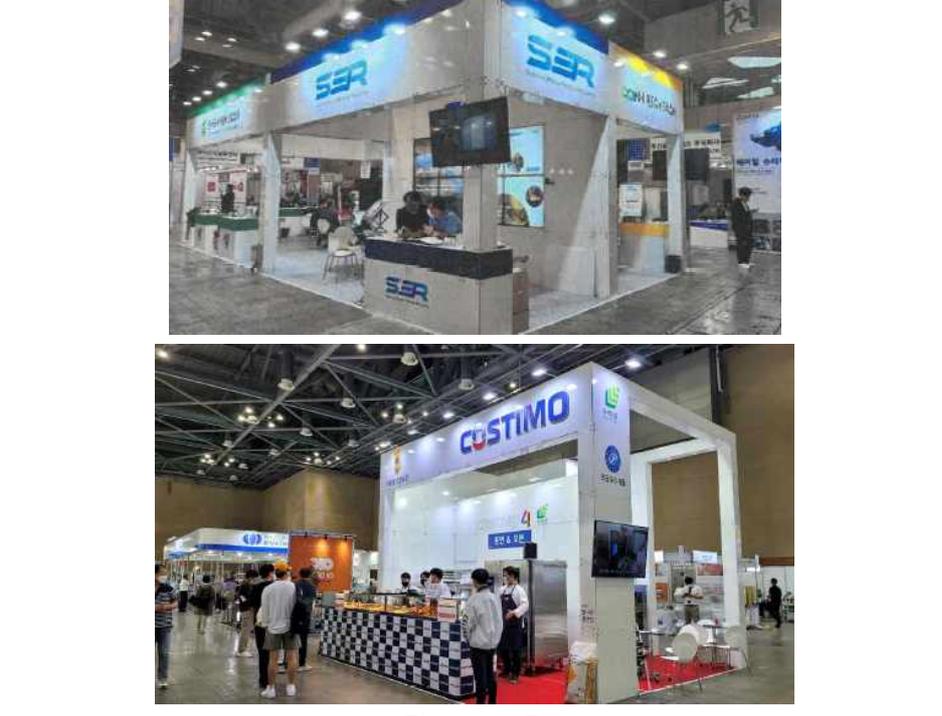
백민숙 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신기후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민간 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를 선언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 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도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녹색기후산업을 새로운 4차 산업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기후산업이란 제조, 건설, 에너지, 농림수산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가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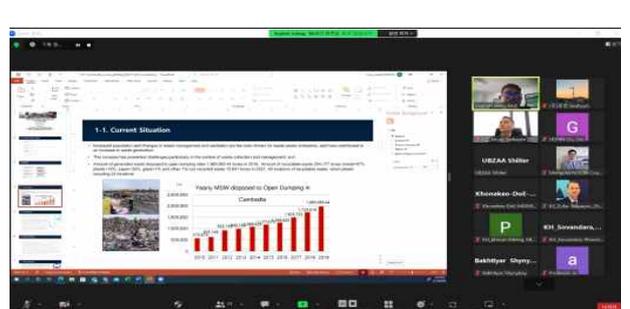
시는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 이어, 2018년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지난해까지 총 66개 기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매출증가(428.5억 원), 고용창출(134명),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73건), 투자유치(95억 원), 조달청 혁신제품인증 선정(2건)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관련사진>

| | | |
|--|---|--|
|  <p><시제품 제작></p> |  <p><성능검증 완료></p> |  <p><미국 특허등록></p> |
|--|---|--|

| |
|--|
|  <p><전시회 사진></p> |
|--|

<2022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화 국제 컨퍼런스 사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환영사>



<전체 사진>

<개도국 현황 발표>



<사례 발표>

□ 사업목적

- GCF 연관산업인 녹색기후산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
- 녹색기후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전문 지원기구 운영 활성화

□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현황

- 설립 일 : 2019. 7. 19.
- 설립근거 :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기업 지원), 제15조(지원기구), 제16조(기능),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 위 치 : (재)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내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 인력구성 : 총 6명(센터장, 선임연구원 3명, 전임연구원 2명)

□ 2023년도 주요 추진 사업

- 기술 사업화 지원
 - 목적 : 관내 중소기업의 녹색기후 기술개발, 녹색제품의 상용화, 기존 산업의 녹색화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 (46,000천원/기업 이내, 10개사)
 - 내용 :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전문가컨설팅, 특허출원 등
 - 글로벌 사업화 지원
 - 목적 : 녹색기후산업체의 사업화 진출을 위한 지원 (10,000천원/기업 이내, 10개사)
 - 내용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홍보지원, 기술 현지화 위한 기술(제품) 인증 및 시험평가, 지적재산권 확보(특허등록) 등
 - 아이디어 창업화 지원
 - 목적 : 녹색기후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초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25,000천원/기업 이내, 2개사)
 - 내용 : 시제품·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마케팅, 컨설팅, 지적재산권 확보, 디자인 등
 - 중소기업 연구과제 발굴 기획 지원
 - 목적 : 지역 내 기업의 중앙정부 사업에 제안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6,500천원/기업 이내, 3개사)
 - 내용 : 특허분석, 차별화 전략, 사업 기획, 컨설팅 등 지원
 -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화 모델 발굴 및 교류
 - 목적 : 녹색기후분야 사업화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한 개도국 진출 기회 마련
 - 내용 : 컨퍼런스 참여 개도국 발굴, 각 국별 사업 현황 조사 및 사업화 모델 발굴
- * '21년도 : 라오스, 르완다, 몽골, 베트남 참여 * '22년도 :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몽골, 베트남